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 -일터 신학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Spirituality Maturity by the Types of Workplace Church
- From the Standpoint of Workplace Theology -**

김동연 (Dong-Yeon Kim)**

ABSTRACT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identifying today's Christian Faith and Labor Relations. That the period is in full swing after the Reformation gradually, the truth began to be clarified in the field of Christian life. It's studying another aspect of work-labor of God's Calling in the tradition of theologians and Calvinism and the Reformed Church with Representing Modern Reformed Theology.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reformatory view of labor is take it as a lesson from the Bible to create a culture that enhances God and promotes the flourishing of mankind. On this basis, traditionally recognized at the field of the Korean church I accept the pastoral pattern of work-labor. I studied the issue of expansion for the pastoral ministry of the workplace church. Weekend ministries(Sat., Sun.) include weekday ministries(from Mon. to Fri). It was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Also, issues related to the basic form of church patterns such as "a gathering Church"(gathering on weekends) and "a Scattering Church"(Scattering Church on Weekdays, etc.), Currently, the cause of the decline in the Korean church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los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ver a leader. This was written as a presentation of the measures and directions, such as the reform of pastoral Transformational leadership.

**Key words : workplace theology, workplace church, workplace mission,
spiritual maturity of the workplace ministry, weekend church, weekday church**

* 2020년 08월 07일 접수, 12월 16일 최종수정, 12월 18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저자의 신학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잡뉴스솔로몬서치 솔로몬일터교회 대표이사/담임목사, 서울 서초구 방배로 39 미주플라자1층, ceo@jobnews.co.kr

I. 서론

한국교회가 복음을 수용하면서 성경(성서)과 교회의 매개를 통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과 믿음을 이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안에서 교리, 사상, 신앙, 삶,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공동체를 이뤄왔으며,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세계 기독교 현장에서 이루지 못한 한국교회의 급성장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장의 풍성한 성과를 누리고 자만하다가 어느 사이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현 상황을 맞으면서 그에 대하여 반성과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서구 교회로부터 전수 받았던 복음은 완전무결함(Perfect)이었으며,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순수하게 따랐다면 오늘과 같은 참담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대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직장에서, ‘일터 사역’과 ‘일터 교회’라는 이슈가 회자(膾炙)되기 시작했으며, 그 관심과 필요가 증폭되었다. ‘일터 교회’와 ‘일터 사역’은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할 주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 종교개혁 후에 기독교는 믿음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왔다. 그중 믿음에 속한 노동과 그에 관계된 다양한 견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과 ‘노동의 관계’(Labor Relations)를 규명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God’s Calling)이라는 일-노동의 측면을 강조해왔다. 장 칼뱅(Jean Calvin)의 개혁적인 시각에서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며 문화를 창출(創出)하는 것이다. 철학적 지식은 그동안 인류에게 보편적 진리로 인식되어온 논리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천박한 하위(下位)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절하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유대-기독교적 전통은 성경의 창조 기사에 따라 노동의 기원을 신성(神聖)하게 본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노동이 힘겨워졌으나 기독교적으로 일-노동의 관점은 고대 사상에 비해서 절대적 긍정(an Absolute Affirmation)이라 할 수 있다(김동연, 2019: 3). 이에 저자는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일-노동’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삶과 일터 속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가를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연구해 가겠다. 본 논문은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 (일터 신학의 관점에서)의 논문을 축약(縮約) 수정 보완하면서, 일터 교회의 모든 이슈를 연구할 것이다. 기독교적 일의 개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신학적 논리에 비춰보면서,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일터 교회’와 ‘일터와 관계된 각 주제가 구성원들에게 영성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지’의 설문지 분석과 함께 ‘일터 교회 공동체의 사역 방향 제시’와 ‘향후 연구 과제’까지를 제시하며 부족하나마 본 논문이 한국교회와 사회적 일터를 거룩함으로 정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기여도에서 상당한 헌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II. 문제제기

1. 일터 신학과 본 연구 주제의 문제점

근래 일터 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일터사역을 실행하고 있다. 은누리교회와 충신교회와 사랑의교회 등 대표적 대형교회들이 일터사역을 주 사역으로 운영하고 졸업을 앞둔 신대원생들도 이런 일터 사역 프로그램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일터교회의 개척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터 신학은 지금까지 사변적인 신학에 매여 있는 관계로 사역과 영성을 위한 실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오지 못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정한 ‘일-노동’의 신학적인 이슈와 함께 정당한 학문적 논리를 갖추고, 오늘의 일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성 성숙’(Spirituality Maturity)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김동연, 2019: 4). 특히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국가의 교회보다 성경(성서)적 정통성과 보수성에 강한 신학적 정서가 진하게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현장에 젖어 있던 우리에게 ‘일터 교회’라는 주제가 선뜻 우리에게 와 닿지 못하는 감(感)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교회, 특히 80년대 초반부터 미국교회 현장에서 ‘일터 교회’를 이슈화하고 그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교회도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일-노동’의 특성상 쉽사리 환경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일터 교회와 그에 대한 사역은 한국교회 현장과 일터 현장에서 워낙 거세게 요구되므로 자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터 신학’과 ‘일터 교회’의 관계성을 연구해 갈 것이다. 나아가서 세계 선교현장에서 ‘일터 교회’를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터선교사로서 직업을 가지고 입국하여 그 나라에서 일하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 이에 전통적인 선교사역 패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터 사역의 전환을 제시해 가겠다.

2. 목회 방법 전환요구-주말 사역에서 주중 사역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의 목회는 ‘주말’(Weekend)에 집중한 사역이었다. 실제적으로 주중(Weekdays) 5일(월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사역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시도조차 하기 힘든 이질적인 목회패턴이었다. 따라서 교인들의 주중 생활을 위한 일터 사역이 어찌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안적 사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주말의 하루나 이틀 정도의 사역보다는, 주중 5일 정도의 사역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가 목회(사역)자에게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주일 사역을 외면하고 아예 주중으로 돌리자는 말은 아니다. ‘주말 사역’에서 ‘주중 사역’으로 확대(Expanding from ‘Weekend Ministry’ to ‘Weekday Ministry’)하자는 요구로서 이런 문제는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패턴’(The Pastoral Pattern)을 요구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일-노동’의 개념

(1) 하나님이 진지하게 생각 ‘하는 일-노동’개념은 거룩한 흔적

Table 1. Theorem of Concept of ‘Work-Labor’

주제Topic	정의Definition	설명Explanation	관념Concept	비고etc
하나님 God	천직 Calling	Calling-인간, 일하도록 부름 받음 자신의 일을 인간에게 위임함	암묵적 계시	인간-일의 파트너
플라톤 Plato	질료 Matter	형상-높은 차원의 이데아로 봄 일-낮은 차원의 질료로 봄	낮은 질료	일손 놓은 상태 -최고 인정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일-목적 아님 Not Work- Purpose	한가(행복) 얻기 위해 바쁜 일함, 행복은 여유를 제공함, 일과 반대	땀이 행복 조건 못됨	한가함 가치- 행복 그 자체
일반 철학 Philosophy	야만적 Barbaric	인간이 할 짓이 못됨 인간-최고 본질은 관조하는 철학	얕잡아 봄	이분법 사고- 철학, 일 분리

폴 스티븐스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일꾼들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창1:28). 일은 선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거룩하므로 피조물인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다. 우리는 인간의 조상에게 맡겼던 일을 장구한 세월을 지난 오늘날에도 위임받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 ‘일터 교회’의 용어 및 개념

① 일터 사역 공동체의 발생

기독교는 일-노동을 성경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사역으로 행해지던 ‘일’(Labor)을 ‘일터 교회’와 연결시켜 정제된 개념으로 정리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일을 일반적인 일과 믿음 안에서의 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순전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피터 와그너(Peter C. Wagner)는 그의 저서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 *The Church in the Workplace*』에서 ‘일터 안’(In the Workplace)에서의 ‘교회’를 언급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자는 그의 연구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하였다.

Table 2. The Whurch and the Whurch in the Workplace

일터 안의 교회	The Church In the Workplace
The Church of The Workplace	일터의 교회 혹은 일터교회

② 일터 교회의 용어 사용 동기

와그너는 이 용어를 2001년 6월 미네소타에서 진행된 일터 사역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장터'(Market-Place)와 '일터'(Workplace)라는 두 개념 속에서 직장(일터) 안에 교회로서 '일터 교회'의 용어를 정했다. '신앙과 일' 등 중요한 저술 작업을 통해 '일터'에 대한 사역을 전개한 오스 힐먼(Os Hillman)은 '일'과 '신앙'을 구별했던 기존의 종교적 통념을 깨뜨리는 자발적 운동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기업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포춘]지에 소개했다. 이런 운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로서 이제는 매우 타당한 이유로 밝혀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추정완(2002: 72)은 노동과 직업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Job)을 소명(Calling)과 동일한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성서)적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Avodah'(아보다)이다. 이 낱말은 예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다. 또 '서비스'(Service)라는 영어 단어는 이 뜻을 담고 있는 최적의 단어로서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Service) 것이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수단인 것을 알게 된다(김동연, 2019: 16).

Table 3. The Meaning of Work-Labor

Labor-Avodah Meaning	עֲבוּדָה (Hebrew) Originating in Avodah
노동-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리스도의 일터 공동체(교회) 중심사역

2.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

(1) 일-노동에 대한 구약의 관점

구약성경이 말하는 일-노동의 관점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것은 아주 신성하다. 구약 성경은 일에 대한 시각으로서 시종일관 일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일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순수하고 신성한 것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퇴색되었음을 말해준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

3:17-19).” 그러나 성경은 일을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가르친다(시128:1, 2). 성경은 인간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더욱 부각시키고 인간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대적인 명령에 준거하기를 바라고 있다(창1:28).

(2) 일-노동'에 대한 신약의 관점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일에 대하여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일을 ‘그리스도의 노동’ 즉 그분의 사역과 기적들과 구속 사역에 비추어 기술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 구속 사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구속을 행하기에 예수님도 함께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요6:29).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목수로 사역하신 사실을 통해 성경은 일이 인간에게 필요하고 선하다는 교훈을 전달해 준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연적으로 행해야 하는 요소이다(요9:1-5). 그러므로 일-노동은 사명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자유 가운데서 이끌어 가야(Ferguson & David F. Wright, 2001: 190-192)한다. 구구원 이전의 일은 무의미하거나 자기 중심의 육적인 삶이었지만, 구원 이후의 일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요소임을(김동연, 2019: 21)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마9:37, 38).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며(고전3:9), 그들의 우선 과제가 복음을 진척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노동을 근실하게 하는 것이 서신서에서는 단순한 의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감사하여 복음에 걸 맞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빌1:27).

3. 신학으로서 일에 대한 고찰

(1)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일의 신학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일’로서의 신학(Theology)이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신앙과 논리로 파악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말한다. 그러나 신(Theos)에 관한 합리적 탐구(Logos)[네이버 지식백과-브리태니커 사전] 그 근본은 성경의 원리에 속한 것은 분명하다. 직장 안에서 일터사역 공동체 교회의 문제는 일의 신학적인 이슈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출발한다. ‘일터 사역’, ‘일터 교회’, 그리고 ‘일터 선교’의 주제들은 일터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에서 신학을 동시에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의 신학’은 근대적 신학 개념에서 살필 수 있다(김동연, 2019: 31). ‘일의 신학’은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장 칼뱅(Jean Calvin), 그리고 쾰빙글리(Ulrich Zwingli) 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신학에 소개된 것이다(Codsen, 2004: 4-5). 우리는 그런 계기로 일의 신학(the Theology of Work)우리는 그런 계기로 일의 신학(the Theology of Work)을 접하게 되었다. 일

의 신학 역시 성경의 원리에 속한 것이므로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16세기 초반의 개신교는 변증신학과 조직신학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그러다가 복음증거의 선교신학은 18세기 후부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이슈는 실천신학적인 이슈로 다뤄지다가 19세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일터 사역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일터 신학자 폴 스티븐스는 그의 저서를 통해 성경 인물의 삶 속에서 일의 신학을 찾아내고 있다. 일의 신학적인 문제, 일터 속의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구속사를 통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폴 스티븐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창조, 타락, 구속과 그 성취로 엮인 성경적 신학을 깨닫게 되면서 일의 신학을 통해 직업에 관한 조직신학과 개인의 성화를 위한 영성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

(2) 노동-일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적 관념

중세 사람들은 인간의 노동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익을 얻을 일시적인 수단으로 여겼을 뿐, 세상을 떠난 후에 다가올 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필요한 요소로는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은 지엽적인 문제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하디는 그의 저서에서(Hardy, 1990: 71)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노동을 달리 보았다(Hardy, 1990:71). 인생을 향한 거룩한 뜻의 핵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장 칼뱅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서의 일-노동은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장 칼뱅은 개혁주의의 노동-일에 대한 신학적인 관념을 말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행하는 방편으로 인간이 선한 노동-일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했다(히3:21).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바로 인간이 온전하도록 자신의 삶을 위하는 일이며, 그의 가족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살후3:10-13). 즉 장 칼뱅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과 가족을 위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일터 그리스도인의 구속과 일-노동

타락한 인간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며, 인간의 '일-노동'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노동이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미치듯 노동의 의미도 달라졌다. 일-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 신학사상이며, 개혁주의자들의 '일-노동'관이다. 장 칼뱅은 노동을 기독교의 구속적인 삶과 관련시켰다. 일-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참

여하는 것으로 구속을 실천하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호(2014: 178-179)의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에서 칼빈은 루터와 같이 노동-일을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나는 이웃을 위해서 이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은 제네바 시민에게 귀가 아프도록 들려준 그의 모토(Motto)였다. 장 칼뱅의 금욕적 직업윤리의 중요 특성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직업의 몰아적(沒我的) 헌신을 위한 것으로서 직업의 헌신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구속함에서 주어진 자신의 일-노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실한 정신 적 자세와 태도(Jean, Institv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p.104)라고 했다.

4. ‘일터 영성’의 정의와 ‘영성 성숙’

(1) ‘기독교 영성’의 정의

‘영성’(Spirituality)이란 무엇인가? 김세윤(2014)은 서울영동교회에서 실시한 강의에서 일반적인 영성은 인간이 종교나 수련을 통한 정신적 삶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배수영(2002: 67-69)은 <내면세계로의 여행>에서 ‘기독교적인 영성’을 인간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규정하였다. 민경배(1991: 114)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눈을 바로 뜨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지적하였다. 퍼거슨과 라이트(Ferguson & Wright, 2001:743)는 이 거룩한 삶이 신령한 영역으로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면서 베푸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며 인간의 창조적인 본질을 되찾게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영성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아가 절대적인 그분을 찾아가는 속성을 말한다. 이 속성은 영성을 형성하는 거룩한 삶과 일을 하며, 절대적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고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일터에서 영성(靈性)의 본질을 찾게 되므로 ‘일터 영성’(Workplace Spirituality)이라고 단언하게 된다(김동연, 2019: 25-26). 퍼거슨과 라이트(Ferguson & Wright, 2001:747)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신학적 영성과 신학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추구의 속성으로서 절대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영성으로서의 신학’은 성경을 근간(Original Source)으로 하는 원리(Principle)로서 바르게 인식해야 할 가치가 있다. 바른 삶의 원리가 일반적인 법에 근거한다면 영적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 그의 말씀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김동연, 2019: 24). 그것은 곧 신학의 원리로 발전하고 조직화되어 신학적인 영성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영성은 총체적인 삶을 낳게 되므로 영성의 진정한 삶을 요구하게 된다. 신학의 원리에 입각한 삶을 행하므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하는 원리가 작용한다.

(2) 일터 영성 성숙

영성이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불완전한 인간이 '성숙'을 추구하는 속성으로서 '온전'을 향해 추구해 간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온전함'의 단어 의미는 "최종적 단계까지 추구함"을 의미한다. '온전함'은 헬라어 τέλειος(Blank, 1998: 143)의 번역서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의 행위를 말한다(마5:48). 성경 신학자 박윤선은 "믿음은 선을 발생시키고 선을 행하지 않고는 믿음이 식어 진다"고 말하며, 또한 "믿음과 행위는 실제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구원의 공로는 될 수 없으나 믿음의 한 방면의 성분으로 되어있다."고 역설했다. 저자는 박윤선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믿음과 행위는 공히 '영성'으로 귀결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기독교 영성은 신앙의 체험(Experience), 훈련(Discipline), 실천(Practice)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삶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합일(合一)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다." 영성은 성숙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규범은 성경이다. 성경이 명령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그 명확한 규범 안에서 영성은 시작하고 발전한다. 이를 가리켜 '구현(具現)된 신앙을 위한 말씀을 본받는 행위로서의 기독교적인 영성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Knowing), 사랑하고(Loving), 경험하는(Experiencing)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있는 원천적 동기이며 성숙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김동연, 2019: 25).

5. 일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요구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경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피커슨과 라이트(Ferguson & Wright, 2001: 1060)는 당연히 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롬12:2).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생각의 전환을 말한다. 진정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밖으로부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 변화의 요구에서 와그너는 말한다. "새로운 경영 혁신이 소개되면 어떤 이들은 최초의 수용그룹이 되고, 그 다음 중간 수용그룹이 따르며, 다음으로 후기 수용그룹이 형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어떤 혁신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그룹이 4개 그룹 가운데 3개 그룹이라면 대다수가 변화의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모여 있었던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일하는 교회'의 새로움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회는 '일터 교회'를 목적으로 마땅히 새로운 것을 수용할 환경이 조성된 사회 환경 속으로 그 날개를 한껏 뻗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김동연, 2019: 26).

(1) 일-노동은 하나님의 소명

일터 사역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명(천직, Calling)으로 정의한다.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제롬이 말했다. 정성구 박사는 “당신을 선교사로 불렀다면 최대의 영광으로 인정하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일’(수고)에 대한 몫을 다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κλήσις(헬, 클레시스)의 용어에는 부르심이라는 말이다. 이 용어에는 사회적인 부르심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직업’, ‘지위’가 포함되어 있다. 한 개인의 직업이나 지위에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부가되고 있다. 일의 본질에 대하여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거나 못할 때, 개인의 지위는 자유나 속박이 결말로 다가온다. 일-노동에는 자연적인 삶(Natural Life)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일에 대한 경건함을 갖는 사람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경건함으로 범사에 유익함’을 얻는다(딤후 4:8).

(2) 패러다임 요구-주말 사역에서 주중 5일 사역

국제일터사역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Workplace Ministries) 대표인 오스 힐만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일터 영성사역에 관한 기관은 단 한 군데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후 약 8년 동안에 수백 개에 이르다가 지금은 14, 000개 정도의 기관들이 신앙과 일을 통합하여 일한다고 했다. 이에 관련하여 풀러신학교 교수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1980년대 미국의 기독교업연합(Fellowship of Companies for Christ)의 단체와 국제기독교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ristian Chamber of Commerce)와 같이 중요한 일터 사역이 조직되었지만, 괄목한 만한 상승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전통(기성) 지역교회에서 주일예배 등 일주일에 하루만 집중적으로 사역하던 목회 패러다임을 한 주간의 주일에 한정되던 7일 동안의 교회사역에 한정되던 사역을 주 5일 사역으로서의 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김동연, 2019: 43).

IX. 연구의 조사 대상자 특성

1. 전체 설문참여 현황-일터교회와 일터기관

본 논문 [일터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엔 약 40개 이상의 설문에 대한 통계에 관한 도표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 핵심적인 통계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몇 개 정도만 소개했다. 설문지를 모으고 통계하고 분석하면서 매우 실제적인 일터교회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수립하면서 한국교회의 일터교회에 대하여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도록

록 최선을 다했다.

Table 4. Workplace Church & Workplace Company

구분 Sortation		일터사역의 교회 Workplace Ministry Church				일터교회의 기관 Workplace Church company				Percentage (%)
		사랑의 교회 SaRang Church	충신 교회 Chung Sin Church	오륜 교회 Oryun Church	성광 교회 Sung Kwang-Church	한국 교세라 Korean Kyocera	우성 염직 WooSung Dyeing	한만두 식품 Hanmandu Food	잡뉴스 솔로몬 서치 Jobnews-Solomon Search	
Survey Re-spondents	Frequency (명)	139	27	8	27	240	114	94	32	(100)
	Percentage (%)	(20.5)	(3.9)	(1.2)	(3.9)	(35.2)	(16.7)	(13.9)	(4.7)	
Total		201(29.5)				480(70.5)				681 (100)

(1) 통계코드 설명

① 본 논문의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681명이다. 각 교회나 기관별로 설문에 응답해준 현황은 소개한 위의 도표와 같이, ‘일터사역교회’ [사랑의교회, 충신교회, 오륜교회, 성광교회]까지 4개 교회이며, ‘일터사역기관’은 [한국교세라, 우성염직, 한만두식품, 잡뉴스솔로몬서치]까지 4개 기관이다. 전체 8개가 설문에 참여했다. 각 기관의 설문 참가자에 대한 수치와 그에 대해서는 백분율(%)로 나타냈다.

② 그들은 모두 일터에 관련한 사역을 하는 교회이거나 일터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와 훈련 등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기관이다.

③ 일터사역교회는 정기적으로 일터공동체에 대한 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터사역기관은 정기적으로 직장예배로 모이고 있었다.

(2) 통계코드 분석

① 일터사역하는 4개 교회의 설문참가율은 [사랑의교회20.5%, /충신교회3.9%/오륜교회1.2%/성광교회3.9%]이며, 일터사역하는 4개 기관(직장)은 [한국교세라35.2%/우성염직16.7%, /한만두식품13.9%/잡뉴스솔로몬서치4.7%]로 응답해 왔다.

② 전체 설문 참가자 681명 중, 일터사역을 하는 4개 교회의 설문 참가자는 201명(29, 5%)이다. 그중 사랑의교회는 139명이며, 20.5%나 된다. 사랑의교회는 일터 사역자를 전문적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주 약 1,000명 이상 일터에 대한 사역을 훈련하면서 일터교회로 사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미래 목

회 먹거리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

③ 회사 내에 일터교회를 세운 4개 기관(직장)의 설문 참여율은 480명(70, 5)이며, 그중 4개 기관 한 국교세라는 681명 중 240명이 참여한 율은 35.2%나 되는 것은,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 사원 150명 이상이 일터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설문참여율이 높았다.

④ 대부분 일터교회에서 일터사역을 하거나 기관(직장) 내 일터예배를 드리므로 이번 설문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준 비율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 공동체에서 일터사역으로 더욱 사역의 활기를 찾게 될 비전으로 보이기도 한다.

2. 연령대별-설문참여 현황

Table 5. Survey Participation Statistics &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구분 Sortation	내용 Content	빈도(명) Frequency			백분율(%) Percentage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연령 구분 Age Group	20, 30대 이상 Over 20s and 30s	82	22	104	11.9	3.1	15.0
	40, 50대 이상 Over 40s and 50s	162	145	307	23.7	21.8	45.5
	60, 70대 이상 Over 60s and 70s	13	58	74	1.9	8.8	10.7
	Other	98	98	196	14.4	14.4	28.8
	Total	355	326	681	51.9	48.1	100

(1) 통계코드 설명

- ① 연령대별 설문응답자는 [20대에서 70대까지 남성 355명, 여성 326명]이다.
- ② 연령대별의 참여자수(빈도수)로서[남성은 355명, 여성은 326명 합계 681명]이 참여했다.
- ③ 각 연령별 수치는 [20대 이상 35명/30대 이상 69명/40대 이상 159명/50대 이상 148명/60대 이상 71명/70대 이상 3명/기타(무응답) 196명]이다.

(2) 통계코드 분석

- ① 재치 있는 분석을 위해 각 세대(단계)별을 두 단계로 묶어서 작성한 수치는 [2, 30대 이상 15%/4, 50대 이상 45.3%/6, 70대 이상 10.9%/기타(무응답) 28.8%] 나타났다.
- ② 위 통계를 백분율로 나타내듯이 [4, 50대 이상이 45.3%는 2, 30대 이상의 15.0%와 6, 70대 이상 10.9%에 비하면, 약 4배 이상으로 높은 응답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일터 교회와 사역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의 일터 교회가 미래 구원사역의 왕성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 ③ 각 연령(세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빠짐없이 참여하므로 일터 사역이 지역교회별로, 기관 혹은

회사별로도 대체 목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신앙생활기간, 교회출석기간-설문참여 현황

Table 6. by Faith Life's Times & Church Attendance's Times Statistics

구분 Sortation	내용 Content	빈도(명)Frequency			백분율(%) Frequency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신앙생활 기간 (신생기간) Faith Life's Time	10년 미만 Less than 10s	68	28	96	9.8	4.2	14.0
	10년 이상-20년 미만 More than 10 to 20s	42	21	63	6.2	3.0	9.2
	20년 이상-30년 미만 More than 20 to 30s	38	31	69	5.6	4.5	10.1
	30년 이상-40년 미만 More than 30 to 40s	37	54	91	5.4	8.0	13.4
	40년 이상-50년 미만 More than 40 to 50s	21	45	66	3.0	6.7	9.7
	50년 이상 More than 50s	9	39	48	1.3	5.7	7.0
	Others	139	109	248	20.5	16.1	36.6
Total		681			51.8	48.2	100
교회출석 기간 (교출기간) Church Atten- dance's Time	10년 미만 Less than 10s	90	55	145	13.3	8.2	21.5
	10년 이상-20년 미만 More than 10 to 20s	43	81	124	6.3	11.9	18.2
	20년 이상-30년 미만 More than 20 to 30s	25	41	66	3.6	6.1	9.7
	30년 이상-40년 미만 More than 30 to 40s	18	21	39	2.6	3.0	5.6
	40년 이상-50년 미만 More than 40 to 50s	6	9	15	0.8	1.3	2.1
	50년 이상 More than 50s	4	4	8	0.6	0.6	1.2
	Others	168	116	284	24.6	17.1	41.7
Total		681			51.8	48.2	100

(1) 통계코드 설명

① 위의 통계코드는 [신앙생활기간(신, 생기간)과 '교회출석기간(교, 출기간)'특성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했다.

② 내용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각 세대(연령)별로 시작하여 50년 이상, 그리고 기타(무응답)로 수치를 나타냈다. 빈도수(명)는 세대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③ [10년 미만의 '교출기간' 21%/ '신생기간'은 14%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교출기간' 18%/ '신생기간' 9%/21년 이상 30년 미만은 '교출기간' 9%/ '신생기간' 11%/31년 이상 40년 미만은 '교출기간' 9%/ '신생기간' 11%/ 41년 이상 50년 이상(미만)은 '교출기간' 4%/ '신생기간' 17%/ 기타(무응답)가 '교출기간' 42%, '신생기간' 36%로 각각 그 수치를 나타냈다.

④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본 통계코드에서 백분율(%)로 나타내 주고 있다.

⑤ 신앙생활기간과 교회출석기간과의 차이의 특징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2) 통계코드 분석

① 10년 미만(십대)이 교회출석기간 21%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치를 드러낸 것은 신앙의 초기로 볼 수 있으며 신앙 초기의 뜨거운 열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열기를 누구러 뜨리지 못한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②따라서 일터 교회는 십대들 구성원이 많을수록 젊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수 있음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

③ 연령대로서 중심이 되는 세대가 '21세 이상 30세 미만'이다. 이들의 수치가 교회출석기간 9%와 신앙생활기간 11%로 별 차이 없이 드러난 것은, 신앙의 훈련이나 일터 사역을 하는 교회나 일터 예배로 모이는 세대들의 중심축으로서 신앙이나 훈련이 새로운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본다.

V. 분석결과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모두 8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4개 기관은 지역교회에서 일터사역을 진행 중인 교회로서 '사랑의교회', '충신교회', '오륜교회', '성광교회'이다. 나머지 4개 기관은 일터사역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한국교세라', '우성염직', '한만두식품', '잡뉴스솔로몬서치'이다. 여기에 작성된 도표와 그에 따른 분석은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응답항목 중 상위권을 모아서 통계코드로 작성하여 분석해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로서 설문항목의 주제별은 4개를 다음과 같이 한글 제목과 아울러 영문 제목을 함께 담아 소개한다.

첫째, [일터 영성 성숙](Workplace Spiritual Maturity)/

둘째, [일터 신앙(신학) 성숙] (Workplace Faith Maturity)/

셋째, [일터 신앙훈련 회심](Conversion of Faith Training) /

넷째, [일터 예배사역](Workplace Church Worship Ministry)/

1. ‘일터 영성성숙’ 설문응답 상위권

Table 7. Top Statistical Code for Survey Responses of Workplace Spiritual Maturity

일터 영성 성숙 Workplace Spiritual Maturity-WSM						
주제이니셜코드 Subject Initials Code	설문지 항목 주제 요약 Survey Topic Summary	설문지 평가 상위권 선택 Top-level of high of Survey			백분율 (%) Percentage	전체빈도 (명) Frequency
		③보통 Usually	④긍정 Positive	⑤매우긍정 Very positive		
W-1	일터 현장 의무 Workplace Field Duty	250(36.7)	212(31.1)	131(19.2)	87.0/100	681
W-6	공동체 의식 인식 Get Community Spirit	171(25.1)	309(45.3)	129(18.9)	89.3/100	
W-5	일, 하나님 소명 Works, God's Calling	214(31.4)	195(28.6)	123(18.0)	78.0/100	
W-2	예수까지 성장 Grow to Jesus	223(32.7)	229(33.6)	121(17.7)	84.0/100	
W-14	일터교회 참여 Attend Workplace Church	201(29.5)	286(41.9)	97(14.2)	85.6/100	
W-7	일터환경 극복 Overcome Workplace	193(28.3)	283(41.5)	94(13.8)	83.6/100	

(1) 통계코드 설명

① 본 통계코드는 주제- ‘일터 영성 성숙’(Workplace Spiritual Maturity)이다. 이니셜은 ‘WSM’이며, 본 통계코드의 주제 이니셜 코드는 ‘W’로 사용하여, 6개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심플하게 ‘주제요약’으로 달아 놓았다(예: W-1일터현장 의무).

② 본 설문 통계코드대로 전체 설문에 참가한 수(명)는 681(전체빈도)명이다.

③ 설문항목에서 응답한 자료를 근거로 [③보통, ④긍정, ⑤매우긍정] 3개 항목의 상위권을④ ‘보통’, ‘긍정’, ‘매우 긍정’의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위의 통계코드대로 각각 수치로 작성하여 소개한 대로 한 항목 질의마다 6개의 상위권 응답자료를 통계한 것이므로, 그 수치를 확인하면서 설문 응답자의 6개 주제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통계코드 분석

① 위의 설문 통계코드에서 ‘W-1 일터 현장 의무’(87.0%)가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낮은 수치인

‘긍정 항목 131(19.2%)’는 위의 통계코드에서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보여준다. 주 5일 동안 일터에서 신앙생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계기로 ‘영성 성숙’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② ‘W-6 공동체의식 인식’에서 ‘④긍정’ 부분이 309(45.3%)의 수치는 세속적인 직장생활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고 있으며 모임에서 영성 성숙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찾을 수 있다.

③ 이어서 ‘W-14 일터교회 참여’(85.6%), ‘W-2 예수까지 성장’(84.0%), ‘W-7 일터환경 극복’(83.6%)는 일터교회의 이슈를 직장 내에서 긍정적으로 극복해 가는 기반(基盤)을 가지고 있으며, ‘일터교회 참여’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슈이며, ‘일터환경 극복’ 이슈 역시, 그 관심을 더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2. ‘일터 신앙(신학) 성숙’ 설문응답 상위권

Table 8. Top Statistical Code for Survey Responses of Workplace Faith Maturity

일터 신앙(신학) 성숙 Workplace Faith Maturity-WFM						
주제 이니셜 코드 Subject Initials Code	설문지 항목 주제 요약 Survey Topic Summary	설문지 평가 상위권 선택 Top-level of high of Survey			백분율 (%) Percentage	전체빈도 (명) Frequency
		③보통 Usually	④긍정 Positive	⑤매우긍정 Very positive		
F-4	부활 내세 신앙 Resurrection, The next world, Faith	163(23.9)	210(30.8)	166(24.3)	79.0/100	681
F-12	일터예배 믿음 Workplace worship, Faith	172(25.2)	228(33.4)	156(22.9)	81.5/100	
F-5	예수재림 신앙 Jesus Second Coming Faith	193(28.3)	194(28.4)	145(21.2)	77.9/100	
F-1	예수 구주 직업관 Jesus Savior Vocation view	201(29.5)	204(29.9)	142(20.8)	80.2/100	
F-3	신적 섭리 인정 Recognition of God's Providence	178(26.1)	228(33.4)	128(18.7)	78.2/100	
F-11	복음증거 비전 Evangelical Evidence Vision	211(30.9)	215(31.5)	118(17.3)	79.7/100	

(1) 통계코드 설명

- ① 두 번째 통계코드는 주제- ‘일터신앙(신학) 성숙’(Workplace Faith Maturity)이다.
- ② 이니셜은 ‘WFM’이며, 본 통계코드의 주제 이니셜 코드는 ‘F’로 사용하여, 6개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심플하게 ‘주제 요약’으로 달아 놓았다(예: F-1).
- ③ 위의 통계코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설문지 응답항목은 ‘F-12 일터예배 믿음’(81.5/100%)으로 나타났다.
- ④ 다음 높은 수치로는 ‘F-1 예수 구주 직업관’이다.

(2) 통계코드 분석

- ① 가장 높은 수치의 응답항목 ‘F-12 일터예배 믿음’(81.5/100%)로 나타난 것은, 이 항목에서 ‘④ 긍정’의 수치, 228(33.4%)로 보여주면서 일터현장에서 예배훈련을 통해 믿음이 더 든든하게 형성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 ② 다음 높은 수치, ‘F-1 예수 구주 직업관’은 직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투철한 믿음의 직업관의 제시한다. 그리고 3가지 항목(보통/ 긍정/매우긍정)에서도 보여주지만 ‘예수 구주 직업관’이 골고루 그 수치를 드러내 준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가진 직장인이 많을수록 신앙 영성이 높고, 한국의 기업 분위기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③ 이어 뒤따라서 ‘F-11 복음증거 비전’(79.7%), F-4 부활 내세신앙 ‘(79.0%), ‘F-3 신적 섭리 신앙’(78.2%) 순으로 고르게 나타난 수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해 왔다는 증거(證據)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지금 한국사회를 심히 혼잡하게 하는 이단 등(특히 신천지)의 출현으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양육은 이제, 일터사역기관과 일터사역을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바르게 이어가야 하겠다.

3. ‘일터 신앙훈련 회심’ 설문응답 상위권

Table 9. Top Statistical Code for Survey Responses of Conversion of Faith Training

일터 신앙훈련 회심 Conversion of Faith Training-CFT						
주제 이니셜 코드 Subject Initials Code	설문지 항목 주제 요약 Survey Topic Summary	설문지 평가 상위권 선택 Top-level of high of Survey			백분율 (%) Percentage	전체빈도 (명) Frequency
		③보통 Usually	④긍정 Positive	⑤매우긍정 Very positive		

C-7	신앙수정 노력 Faith-modification Efforts	206(30.2)	276(39.6)	77(11.3)	81.1/100	681
C-6	일터신앙 도움 Help from Workplace	210(20.8)	237(34.8)	70(10.2)	75.8/100	
C-5	영적 회심 성숙 Spiritual Repentance Maturity	212(31.1)	233(34.2)	69(10.1)	75.4/100	
C-2	일터 신앙 상태 State of Faith in Workplace	335(49.1)	154(22.6)	58(8.5)	80.2/100	
C-4	영적 회심 경험 Spiritual Repentance Experience	228(33.4)	173(25.4)	58(8.5)	67.3/100	
C-8	말씀 적응 노력 Word Adaptation Effort	233(34.2)	240(35.2)	54(7.9)	77.3/100	

(1) 통계코드 설명

① 세 번째 통계코드는 주제- ‘일터 신앙훈련 회심’(Conversion Faith Maturity)이다. ② 이니셜은 ‘CFT’이며, 본 통계코드의 주제 이니셜 코드는 ‘C’로 사용하여, 6개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심플하게’ 주제요약’으로 달아 놓았다(예: C-1).

③ 위의 통계코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설문지 응답항목은 ‘C-7 신앙수정 노력’ 백분율(81.1/100%)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터교회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쳐가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2) 통계코드 분석

① 더욱 이 항목에서 ‘④긍정’의 276(39.4%)의 수치는 “그렇게 하겠다”는 신호로 약 절반 정도의 동의적인 면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일터교회가 모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온전치 못한 신앙적인 문제를 자구적(自救的)으로 고쳐가겠다는 의지로서, 앞으로 일터교회의 영성의 수준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②다음 ‘C-2 일터 신앙 상태’의 항목에서, ‘③보통’ 335(49.1%)의 수치는 위의 통계코드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일터교회 현장이 보통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직장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을 복음화시켜 영성(신앙)훈련을 통해 더욱 향상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③ 그 뒤를 이어 ‘C-8 말씀적응노력’과 ‘C-6 일터신앙도움’, 그리고 ‘C-5 일터회심성숙’의 항목들은, 본 논문 연구 주제의 ‘일터교회 영성 성숙도’와 궤를 같이하므로 영성 성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조성되어있는, 긍정의 신호로 여겨진다.

4. '일터 예배사역' 설문응답 상위권

Table 10. Top Statistical Code for Survey Responses of Workplace Church Worship Ministry

일터 예배 사역 Workplace Church Worship Ministry-WCWM						
주제 이니셜 코드 Subject Initials Code	설문지 항목 주제 요약 Survey Topic Summary	설문지 평가 상위권 선택 Top-level of high of Survey			백분율 (%) Percentage	전체빈도 (명) Frequency
		③보통 Usually	④긍정 Positive	⑤매우긍정 Very positive		
WC-2	예배 공간 확보 Securing Space for Worship	185(27.1)	195(28.6)	93(13.6)	69.3/100	681
WC-5	정기 일터 예배 Regular Workplace Worship	181(26.5)	235(34.5)	88(12.9)	73.9/100	
WC-6	일터 주일 성수 Keeping Sunday at Workplace	188(27.6)	139(20.4)	84(12.3)	60.3/100	
WC-9	일터 예배 산 제사 Living Workplace Worship	207(30.3)	169(24.8)	82(12)	67.1/100	
WC-4	CEO 말씀 전파 CEO Preaching	178(26.1)	246(36.1)	78(11.4)	73.6/100	
WC-7	일터 예배 헌금 Offering Workplace Worship	210(30.8)	141(20.7)	78(11.4)	62.9/100	

(1) 통계코드 설명

① 네 번째로 제시한 통계코드는 주제- '일터 예배사역'이며, 영어는 'Workplace Church Worship Ministry'이다. 이니셜은 'WC'이며, 본 통계코드의 주제 이니셜 코드는 'WC'로 사용하여, 6개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심플하게 '주제요약'으로 달아 놓았다(예: WC-1).

② 위의 통계코드의 주제에 걸맞는 설문항목 중에서 'WC-5 정기 일터 예배'는 백분율(73.9/100%)로 나타났다. 그 안에서 '④긍정'에 대한 설문응답은 235(34.5%)의 수치가 나온 것처럼, 절반 정도의 긍정적인 동기가 도출되었다. 이 항목은, "직장에서 일터예배는 주 1회 드리며, 경영상황 소통과 교육훈련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다"는 의견이다.

(2) 통계코드 분석

① 한주 단위로 직장 속에서 예배로 모이면서 해당 회사의 경영에 관계한 이슈를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으로서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직장예배 시간에 성경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을 시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면서 일터교회 공동체의 '영성 성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음 보여 주었다.

② 다음 설문항목은 약간 민감한 이슈로 ‘WC-4 CEO 말씀전파’라는 주제이다. 일터교회의 “담당 목사 부재 시 일터예배에서 CEO가 대신 말씀전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물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백분율(73.6/10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응답한 8개 기관과 교회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결과를 보여준다.

③ 누구보다 직원을 잘 아는 CEO가 직원들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에 직원들이 ‘영성 성숙’으로 옹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였다.

VI. 일터 교회 공동체의 14가지 사역 방향 제시

Table 11. Outline - Presenting the Direction of Workplace Church Community

Direction	Contents
A. 동일한 사역엔 아낌없이 동참하라 Join the same ministry generous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부르심에 응하도록 정화상태로 놔두라 ○ A-2 공동체로 모였다면 선한 목표를 정하라 ○ A-3 참여하는 행동의 표준화에 맞추라 ○ A-4 당신 옆, 믿음의 동료와 협력하라
B.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Starting small in need of deter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 알아보기 쉬운 '작은 일'을 주시하라 ○ B-2 어부의 천직 의식, 그물 낚는 것을 보이라 ○ B-3 일터 사역자로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라
C. '노동-일'로서 당신의 존엄성을 보이라 Show your dignity as a labor-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구원을 보이라 ○ C-2 그리스도인에게 정체감을 확인하라 ○ C-3 '일-노동'으로 존엄을 보이는 일을 하라 ○ C-4 일터교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확보하라
D. 같은 주제 다른 형식을 갖추라 Have the same subject and different fo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1 믿음이라는 같은 주제로 모이라 ○ D-2 다른 형식으로 표출하라 ○ D-3 속죄의 이슈를 부활 이슈로 적용하라

영성 성숙의 목적을 세운 연구자는 '일터교회 공동체 실천방향'이라는 4가지 큰 주제에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로 14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 한국교회의 강력한 대안으로서 일터(직장) 교회

와 사역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1. 동일한 사역엔 아낌없이 동참하라

A-1 부르심에 응하도록 평화상태로 놔두라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Christians become God’s People)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일터교회의 사역이면서, 한국교회의 일터 현장에서 메인 사역으로 발전하길 연구자는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A-2 공동체로 모였다면 선한 목표를 정하라

일터 교회 역시 다수로 모인 공동체로서 서로의 영적 상태의 균형(바란스)를 맞추며 동반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공동체로 모여 서로의 선한 일을 도모해 가는 사역 방안을 제시해 본다.

A-3 참여하는 행동의 표준화에 맞추라

리더의 지휘 하에 행동이 표준화로 맞춰져 있었으며 참여하는 행동이 공동적이었다. 이로써 한국교회의 변혁적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김동연, 2019: 162).

A-4 당신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와 협력하라

일터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아마 그 직장에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동무(member)이며 그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이뤄낼 수 있다.

2.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B-1 당신이 알볼 수 있는 ‘작은 일’을 주시하라

사람이 알볼 수 있는 ‘작은 일’을 주님께서 주시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공생애 사역의 조력자이므로 우선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나중 창대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

B-2 어부의 천직 의식-그물 낚는 것을 보이라

가장 보잘 것 없는 일에 집중하는 그 자세가 바로 베드로의 참모습이었다. 그물 낚는 모습이 언제나 깨끗하고 비워진 그릇 이듯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아낌없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

B-3 일터 사역자로서 자기에게 치열하라

일터사역의 사역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힘은 ‘영성’(Spirituality)에 있다. 또 그에 대한 영성의 성숙한 덕목이 준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일터 교회의 사역을 새롭게 추진해 갈 수 없다.(김동연, 2019: 164). 그러므로 항상 자기에게 관대하지 말고 치열하여 위대한 일에 동참해야 하겠다.

3. '일-노동'으로서 당신의 존엄성을 보이라

C-1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으로 구원을 보이라

저자는 '영성 성숙'을 향한 존재감을 확인하는 고백이라고 본다(김동연, 2019: 166). 이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높은 자존감에서 얻어지는 '영성 성숙'으로 일터 교회의 구원사역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C-2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일터 그리스도인

구원을 자신도 완성해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과 더불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 공동체에 바라고 계신다. 이 바람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일터 그리스도인은 '영성 성숙'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C-3 '일-노동'으로 존엄을 보이는 일을 하라

일-노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더욱 존엄을 보이는 위대한 일에 이르게 된다. 이런 덕목을 추진해 가기 위해 '일터 영성 성숙'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터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영성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C-4 일터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엄성을 보이는 일

영성의 강한 힘으로 성숙하고 그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 일터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으로 영성의 정체감을 보이면서 노동-일을 통해서 일터 교회 공동체를 완성해 가야 한다.

4. 같은 주제 다른 형식

D-1 믿음이라는 같은 주제로 모이라

믿음의 한 주제로 한 분의 믿음의 대상 앞에 부름 받고 모인 일터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목적, 하나의 행동 등으로 모였다. 그 '하나'라는 객관적 단어가 앞의 주제로, 주관적 단어인 정신, 목적, 행동이 전제되어 공동체(모임)가 되었다. 즉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영성의 목적에 걸 맞는 거룩한 모임으로서 일터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이 '영성으로 성숙'하여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한 천국 백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D-2 다른 형식으로 표출하라

일터 교회는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이방 세계현장과 상황, 대상은 제 각각이지만 그들의 요구와 형편에 맞춰 생명의 복음을 적용하면서 증거 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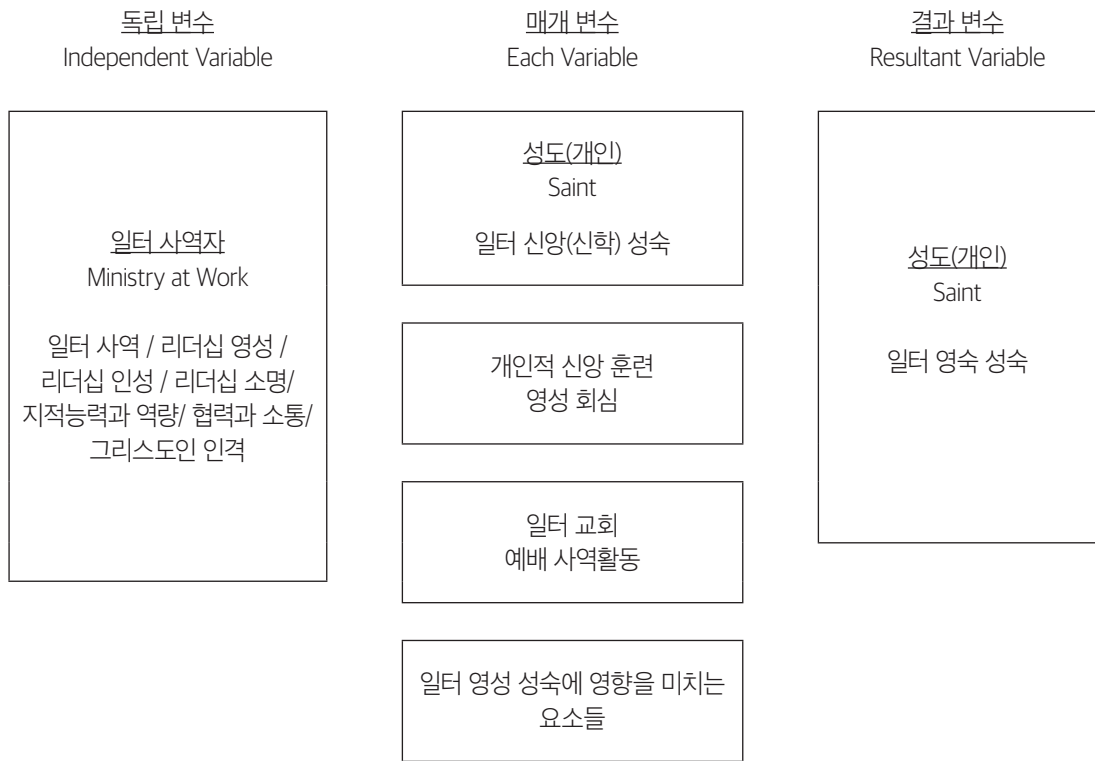
D-3 속죄의 이슈를 부활의 이슈로 적용하라

일터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자각심(Self-Awareness)을 가져본다. 속죄의 구원의 이슈를 부활의 이슈로 영성을 강하게 성숙하게 하여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적용하면서 일터 공동체를 확장해 가길 바란다.

Ⅶ. 본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의 향후 연구 주제는 일터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와 '성도(개인)'이다. 이 두 그룹의 '독립 변수'는 '일터 사역자'로서 '매개 변수'인 '성도(개인)'으로서 어떤 역할로 인하여 그 '결과 변수'인 그리스도인(성도)이 '일터의 영성 성숙'을 나타내는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에 대한 사역과 역할에 대하여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로서 '일터 교회 공동체'의 중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하여 사려 깊은 밑그림을 그려보고 지속적인 일터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기여하여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되는 기적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하락세의 원인을 교회 지도자(목회자)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지도력의 상실을 다시 회복시켜서 현장감에 잘 적응하는 영력(靈力) 있는 지도력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그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를(김동연, 2019: 171). 제시하는 데 있다.

Table 12. Workplace Minister, Variable of Saint



1. 독립 변수: 일터 사역자

다음과 같이 일터 사역자와 일터 교회 성도와의 관계성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먼저, ‘독립 변수’이다. 독립 변수로서 일터 사역자를 핵심 주제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 변수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립변수는 비교되어지고 있는 다른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를 말한다. 주변에 관계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원인(原因)으로서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에 있어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기초로 이론구축, 수량적 조사(數量的調查), 질적 조사방법론(質的 調查方法論)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별개가 아니고 근저(根底)에 있는 방법론은 똑같다.

(1) ‘일터 사역’의 리더로서의 사역을 말할 수 있다

‘일터 사역’, 이것은 전통적 교회의 지도력이 아니고 변형적인 지도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좀 더 나은 지도력도 아니며, 새로운 틀(패러다임)의 교회 지도력에서 발출되는 그런 지도력이어야 한다. 일터 사역 자체가 새로운 정서와 문화, 그리고 환경에서 발휘돼야 한다. 더욱 리더십의 대상인 성도(개인)가 전통적인 교회 성도(개인)과 전혀 다르므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사역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저촉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일터 사역을 추진하는 주체의 ‘독립 변수’의 진가를 나타내야 하므로 일터 사역의 본질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2)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의 영성(Spirituality)을 들 수 있다

일터 사역자는 모든 환경이 일터 사역만 추진할 수 있도록 상황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돌발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일터(직장)는 해당 기업이 흑자 속에서 발전해 갈 때 모든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일터 사역자로서의 이중 고통이 주어지게 된다. 전통적 교회처럼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건이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에서는 누구나 영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도록 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터 교회는 이와 반대로 예배를 비롯하여 영적인 역할을 하면서 ‘일-노동’을 추진해 가는데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우 강한 영성으로 쉽 없이 훈련하여 영성 성숙(성장)을 이루고 그 조건으로 일터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3) 지도자에게 팔로워를 이끌어 가는 데 ‘인성’(Personality)을 간과할 수 없다

믿음 이전에 인간됨의 근본적인 요소는 ‘인성’(Personality)이다. 각박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 환경에서 인성에 좌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성(인격)은 전통적인 교회 지도력 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다양한, 그리고 각박한 현실에 스트레스로 가득 찬 회중(성도)들이 교회와 각종 프로

그램 중에 위로와 권면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지도자의 인성은 그 어떤 요인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독립적인 변수로서 작용해야 한다. 역시 일터 교회의 지도자 인성은 성도(개인)와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므로 일터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데 더할 나위 없는 요소이다. 모름지기 일터 교회 지도자 인성(성품)은 영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영향력에 의하여 그룹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지도자의 소명감(召命感)으로 응답해야 한다

미국 사회의 존경받는 교육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는 소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소명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고 했다. 구약의 지도자나 백성, 그리고 신약의 12제자와 초대 교회 성도 등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그 일에 충실한 것만이 일터 교회 지도자의 바른 자세이다. 일터 교회 지도자에게도 이런 소명감(召命感)이 확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터 교회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부르심에 맞춰서 일하므로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폴 스티븐스의 말대로 “깊은 영성, 단순한 삶, 현실적인 경건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찾길 바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영적 여정이다.” 세상이 지식, 주의, 사상, 힘, 재물, 등에 춤을 추더라도 소명을 받은 일터 교회 지도자는 소개되는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고 실천하는 삶으로서 소명을 이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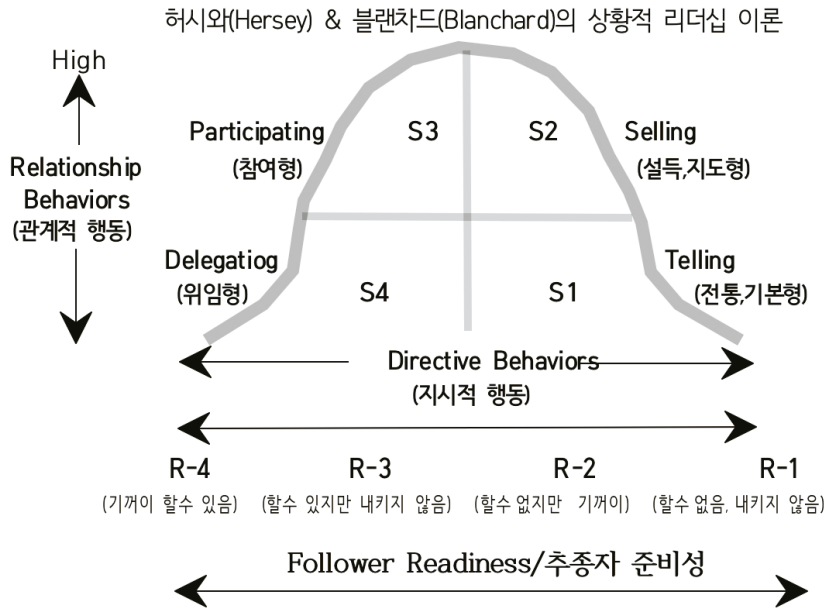
(5) ‘협력’과 ‘소통’은 리더십에서 평행을 이루는 덕목이다

현대적인 지도력은 수직성이 아니라 수평(평행)성이다. 이 이론 중 4가지 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위임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룹의 리더십의 성경적 목표는 ‘S-4 위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S-1, S-2, 그리고 S-3의 세 과정은 S-4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정확하게 거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생략하거나 건너뛰면 마지막 과정에 이르더라도 불완전한 리더십 상태가 된다. 결국, ‘S-4 위임형’은 위의 <Table 13>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평행을 의미하고 있다. 성공적인 일터 교회 리더십으로서 ‘협력’과 ‘소통’의 덕목은 어떠한 변수에서도 변질되거나 흔들림 없으며 오직 독립 변수로서 다른 특성과 혼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평행성의 리더십은 일터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6) ‘그리스도인 인격’은 일터 교회 지도자에게 매우 포괄적인 이슈이다

신약은 “신적인 성품에 참여자들”(벧후 1:4)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처음 부르신 그 자리는 자연인 상태였으나 이런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 상태로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치고 다듬어서 종래에는 ‘신적인 참여자’로서의 자격의 기준을 인격(성품)에 기준을 두겠다는 것이다. 바로 인격의 온전함을

Table 13. Leader Behaviors(지도자 행동 유형)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목표로 정해 본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섭리해 가시며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러한 과정으로서 일터 교회 지도자의 인격은 이에 합당한 인격의 훈련과정을 거쳐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독립 변수로서 주변의 시험 등의 고통을 극복해 가야 한다.

2. 매개 변수 : 일터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는 일터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본’(Our Example)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다(Finisher of Our Faith, 히12:2). 성도는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차원에서 대상과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으나, 그에 쫓리지 않고 성령의 깨달음 대로 순종해야 한다. 성령께서 끊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개인)에게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일터 교회 현장에서 성도(개인)로서 그분께 다가가는 삶을 살므로 일터 교회의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매개 ‘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줌 ‘이라는 뜻을 가진다. <Table 12>의 일터 사역자, 성도(개인)의 변수에서 독립 변수는 ‘일터 사역자 ‘이며, 이 속성은 고정적으로 변하거나 주변의 것에 영향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 ‘성도(개인)’는 은 ‘매개 변수’로서 독립 변수의 작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반면, 일터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성도(개인)의 결과가 변한다고 한다. 일터

교회 성도(개인)는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지도력에 순종하고 협력하면 초대 교회 같은 다이나믹(Dynamic)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3. 결과 변수 : 일터 교회 성도

(1)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구라도 사랑하기’(To love anyone)

저자는 ‘본 논문의 향후 연구 과제’의 ‘결과 변수’로서 일터 교회 성도(개인)에 대하여 제시한다. 일터 교회 성도(개인)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처럼 사랑할 수 없다. 일터 교회 성도(개인)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려운 숙제를 학생이 매일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듯 살아가므로 그를 닮는 노력과 동시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일터 교회 성도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중생(Justification)의 단계에서 다음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에 돌입하며 그 증거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어렵던 모든 것까지 할 수 있다(Hwai S. Rhee,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of Report, Study Analysis of on Character Transformation Changes for Modern Contemporary Christians: Focusing on the Field Ministry of The Ebenezer Church, L.A: The School of Theology Shepherd University, 2017: pp.64-67). 이제 일터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라도 사랑하기’를 꺼리지 않는 인성으로 변화하여 ‘누구라도 사랑하기’(To Love Anyone)의 삶을 추구하면서 영성 성숙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바라보기’(To look at excellence)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약점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일반인(이방인)에게도 나타나는 ‘상대적 빈곤증’(Relative Poverty)이다. 어떤 경우, 심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른 상대와 비교하며 ‘자기 비하’(Self-Deprecation)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손경구는 기질과 영적 성숙에서 성도는 각박한 세속사회나 일터(직장) 속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심한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일터 교회 성도(개인)는 경건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시켜 매일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변화를 체험하며 일터 교회 성도로 거듭나게 된다.

(3)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기’(To Submit to Sovereignty)

일터 교회 성도(개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Sovereignty of Jesus Christ)에 대한 온전한 복종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나온다. Hwai S. Rhee(2017)는 강의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은 일터 교회 성도(개인)

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도덕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숙련된 토기장이므로 질그릇과 같은 일터 교회 성도(개인)를 영광스런 모습으로 빚어주신다(롬9 :21).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일터 교회 성도로서 자신을 굴복시켜야 자신과 교회, 사회와 민족 그리고 세계가 함께 생존하게 된다. 결국, 일터 교회 성도(개인)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가야한다.

(4) 영적 모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Follow Jesus Christ)

일터 교회 성도(개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만(엡5:1), 성도는 경건의 본이 되는 신앙의 조상이나 선배 되는 믿음의 지도자들도 조명해야 한다(히13:7). Hwai S. Rhee(2017)는 강의안에서 사람들은 기록된 진리에 대한 본(a Model)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일터 교회 성도(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인성을 일터 교회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닮아가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터 교회 성도(개인)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본을 발견하고 그를 다가가는 영적인 ‘모방자’(Imitator)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Ⅷ. 결론(논의 및 제언)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성숙’을 주제로 한 본 논문은 일터신학의 관점에서 솔로몬일터교회를 비롯하여 3개 기업의 일터(직장)와 4개의 지역교회의 일터에 관한 목회현장연구를 분석한 자료이다. 본 연구물에 대한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오늘의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과 ‘노동의 관계(Labor Relations)’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의 영성 성숙의 실체를 규명해 놓았다. 솔로몬일터교회 공동체의 실천방안을 기반으로 교육계획에 의해 훈련된 결과를 토대로 조사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설문자료를 총 8개 기관(4개 일터교회를 운영하는 법인기업과 4개의 지역교회 일터사역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의 성도(그리스도인)인 직원들과 지역교회 성도를 포함 총 681명에게 1인당 7개 항목으로 설문을 수집한 자료를 ‘통계코드’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터 교회의 사역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와 대안을 큰 4가지 주제(14가지)를 제시했다. ‘일터 교회’는 생소한 이름 같지만, ‘일터 따로’, ‘교회 따로’, 라는 양분(이분)법적 논리를 깨고, “일터는 곧 교회이며, 지역교회는 일터를 향해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성경이 말하는 교훈들과 개혁자들의 ‘일의 신학’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Righteousness)라는 가치를 심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일과 소명’을 연결할 수 있는 혜안으로 일터는 우리의 ‘주중 사역지’이며,

‘주중 교회’이고, 일하는 손끝의 움직임은 예배 행위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맨’은 ‘일터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소수의 한 사람을 복음의 전임 사역자로 사용하시며, 대부분 사람을 주중 교회의 사역자로 불러 일터로 파송한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일터의 증인으로 일터도 알고, 교회도 알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 진정한 깨달음을 성경과 개혁자들의 일터 신학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이 연구로 일터에 대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어 이 땅에 모든 일터 사역자가 한국을 거룩한 일터 사역지로 만들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지역교회의 예배문화변화와 세계선교의 변화에 새롭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한국교회의 미래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일터 신학’에 기초한 ‘일터(직장) 교회’, ‘일터 선교’, ‘일터 사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물은 기독교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으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는 매우 중요한 삶의 현장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 비록 많은 교회가 일터의 삶과 사역에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으로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터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고찰로 일터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는 일터 신학을 제시함으로써 확고한 ‘일-노동’에 대한 대안으로서 ‘영성 성숙의 실제’를 규명하고 한국교회의 침체된 목회현실에 새로운 대안과 세계선교의 이정표이자 미래 구원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세윤, (2014). 강의안: **한국교회의 위기-왜곡된 칭의론** 탓, 서울: 서울영동교회.
- [Kim, Se-Yoon, “*Lecture: Korean Church’s Crisis to blame be Distorted Justification*”, Invitational seminar, Seoul: The Seoul Yeongdong Church,]
- 김지호, (2004).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용인: 칼빈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 [Kim, Ji-Ho, *What is Calvinism?*, Yongin: University of Calvin Publishing Company,]
- 민경배, (1991). **한국교회에 있어서 사회선교-역사적 고찰**,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회 총회출판국.
- [Min, Kyung Bae, *Social mission in Korean church-Historical review*, Seoul:Presbyterian Church of Korea General Assembly Publication,]
- 박윤선, (1978). **성경 신학**, 서울: 도서출판 영음사.
- [Park, Yune Sun, *Biblical Theology*, Seoul: Yung Eum Sa,]
- 박형룡, (1977). **박형룡 저작전집 3: 교의신학 인간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Park, Hyung-Ryong, *Dr. Park’s series 3, Dogmatics Anthropology*, Seoul: Korea Institute of Christian Education,]
- 배수영, (2002). **어거스틴의 내면세계로의 여행**, 서울: 예루살렘출판사.
- [Pae, Soo-Young, *Travel into St. Augustine’s inner world*, Seoul: Jerusalem Press,]
- ., (2002). **21세기 리더십 에세이**, 서울: 베드로서원.
- 손경구, (2003). **기질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서원.
- 정성구, (2018). **나의 스승 박윤선 박사**, 분당: 킹덤북스.
- [Chung, S. K., *My Mentor, Dr. Yune Sun Park*, Yongin: Kingdom Books,]
- 추정완, (2002). **노동과 직업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Choo, Jung-wan, *A Study of work and profession’s ethical meaning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퍼거슨, 싱글레어 외 다수, (2001). **아가페 신학사전**, 이길상 역 외 3인, 서울: 아가페출판사.
- [Ferguson, Sinclair B. & Wright, David F. *IVP New Dictionary of Theology*. Trans. Lee Gil-

sang and three others, Seoul, Agape Publishing Co.,]

힐먼, 오스. (2007). *The 9 To 5 Window*, 일터 사역: 믿음으로 일터를 변화시키는 일,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칼뱅, 장. (2018). *Institv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칼뱅 총서 1. 기독교 강요 1541 (2판 프랑스어), 박건택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Calvin, Jea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Trans. Gun Taek Park, Seoul: Revival and Reformed,]

칼빈, 존.(1990). *Commentary on the Genesis of Moses*, 칼빈성경주석 번역위원회 역, 창세기 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Genesis of Moses*. Trans. Commentary of Calvin, Biblical, Seoul: Textbook Press,]

와그너, 피터 C. (2014). *The Church in the Workplace*, 일터 교회가 오고 있다, 이건호 역, WLI KOREA.

[Wgner, Peter, *The Church in the Workplace*. Trans. Geon-ho Lee, Gwacheon: WLI KOREA,]

스티븐스, 폴 R. (2018). *Work Matters: Lesson from Scripture*, 일의 신학, 주성현 역, 서울: CUP.

[Stevens, R. Paul, *Work Matters: Lessons from Scripture*, Trans. Sung Hyun Joo, Seoul: CUP,]

켈러, 팀. (2012). *Every Good Endeavor: Connecting Your Work to God's Work* 일과 영성,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서원.

[Keller, Timothy, *Every Good Endeavor: Connecting Your Work to God's Work*. Trans. Jong Hoon Choi, Seoul: Duranno Press,]

리델보스, 헤르만. (1991).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바울 신학, 박영희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Young Hee Park, Seoul: The Society for Reformed Faith & Action,].

강대국의 비밀. EBS 방영, (2014. 4. 9).

“The Secret of the Great Powers.” EBS Broadcast, (April 9. 2014).

허시 &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리더십 이론 작성자 011011011/

<https://lupinafwind.blog.me/120108079046>.

Codsen, Darrell. (2004). *PTM: Theology of Work, a Work and the New Creation*, Carlisle, U.K: Patemoster Press.

Hwai S. Rhee.(2017).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of Report, Study Analysis of on Character Transformation Changes for Modern Contemporary Christians: Focusing on the field ministry of The Ebenezer Church, L.A: The School of Theology Shepherd University.

Blank, Les. (1998). "*Handout for Lecture: Transitions in Ministry*", LA: Azusa Campus.

Hardy, Lee. (1990). *The Fabric of this world : Inquiries into Calling Career Choice, and the Design of Human Work*, Grand Rapids Michigan, Wm: Eerdmans Publishing Co.

The United Bible Societies, (1983). *The Greek New Testament Third Edition(corrected)-Πέτρος ou β*, German Bible Society,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 -일터 신학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Spirituality Maturity by the Types of Workplace Church - From the Standpoint of Workplace Theology -

김동연 (잡뉴스솔로몬서치 솔로몬일터교회)

논문초록

논문의 주제는 ‘일터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이며, 부주제는 ‘일터 신학의 관점에서’이다. 이에 대한 이슈로서, 오늘의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과 ‘노동의 관계’(Labor Relations)를 규명하는데 많은 관심을 집중하였다. 현대 기독교의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God’s Calling)이라는 ‘일-노동’의 또 다른 측면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개혁주의 시각에서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創出)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성경에서 명하는 교훈으로 본 연구는 받아들이고 있다. ‘주말 사역’(weekend ministry/토, 일요일)을 ‘주중 사역’(weekday ministry/월부터 금요일)까지 포함하여, 일터 교회의 목회에 대한 확장의 이슈를 연구했다. 또 기본적인 형태의 교회 패턴이 ‘모이는 교회’(a gathering church/주말에 모이는)에서 ‘흩어지는 교회’(a scattering church/주중에 직장 등으로 흩어지는)와 관계된 이슈를 본 논문의 목적대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교회의 심각한 감소현상의 원인을 대체적으로 지도자(목회자)에 대한 지도력 상실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목회변혁적리더십 혁신 등 그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터 신학, 일터 교회, 일터 선교, 일터 사역의 영성성숙, 주말교회, 주중교회